

광주시, 관광단지·복합쇼핑몰 건립 속도 낸다

22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협약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고시
전방·일신방직 공공기여금 확정
현대백화점그룹, 부지 매입 협의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옛 방직공장터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신세계프라퍼티와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오는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민간개발자 선정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0월26일 신세계프라퍼티를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상호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왔다.

먼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상가시설 지구는 공모지침에서 11만600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최초 제안한 14만3951㎡ 대비 20% 축소된 11만5800㎡를 제출했다.

숙박시설지구는 콘도 270객실 의무 설치와 레지던스 780실을 계획했다. 휴양·오락·공공편익시설은 최초 제안한 15만1695㎡ 대비 20% 확대한 18만191㎡를 제시, 공모지침의 18만㎡ 이상 조건을 충족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사업 협약이행보증금의 모수가 되는 총사업비를 1조2493억원으



19일 광주시의 옛 방직공장터 개발을 위한 공공기여 협상이 공공기여금 5899억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사진은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나건호 기자

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에서 토지와 상가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635억원이 협약이행보증금으로 계획됐다.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에서 제시한 856억원을 웃도는 860억원으로 산정했다.

상생 측면에서는 유원지 부지에 별첨도서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한다. 지역 상권·관광 기반시설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 지역상권 환경 개선 등도 제시했다.

신세계프라퍼티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콘셉트는 '숲·빛·별·삶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관광단지 조성'이다. 숲&힐링, 빛&여가, 별&체험, 삶&머무름 등 4가지 테마를 설정하고 유원지 부지에 6개 공간을 구성해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에는 휴먼스튜디오가 제출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변경안'이 광주도시계획·건

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공동위원회는 사업자 측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업시설 용지와 역사문화공원 1 부지 간 접근성 개선 방안 검토 △도로 위계를 고려한 가로망 계획 검토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달 29일 열린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에서 공공 기여와 관련해 광주시와 휴먼스튜디오가 공공기여 비율

을 54.4%로 결정한 것도 수용했다.

공공기여 액수는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 1조835억원을 근거로 했을 때 5899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휴먼스튜디오 측에 통보, 수용 여부를 거친 뒤 지구단위계획 입안,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그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빠른 시일내에 휴먼스튜디오 측이 소유한 1만평 규모의 부지 매입 계약에 나설 계획이다. 부지가 매입이 되면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개발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약 31만㎡)에 들어서게 될 '더현대 광주'는 대지면적 약 3만3060㎡(1만평), 연면적 30만㎡(9만평) 규모의 문화복합몰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는 '더현대 서울'(연면적 19만5000㎡·약 5만9000평)의 1.5배 규모다.

이와 관련 강기정 시장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까지 주요 현안들을 마무리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시민들에게 속도감 있는 행정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새마을회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 지지”

5개 새마을단체 성명 발표

전남도 새마을회 관계자들이 19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한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합의를 환영하며 무안군에 대해 조속히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전남도 새마을회(회장 이귀남·사진), 새마을지도자 전남도협의회(회장 박창덕), 전남도 새마을부녀회(회장 최경옥), 직공장새마을운동 전남도협



의회(회장 장재원), 새마을문고 전남도지부(지부장 박영수) 등이

전남도새마을회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관련,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에 이룬 대승적인 합의에 17만 회원과 함께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올해 개항 16주년을 맞은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허브공항 역할을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과 달리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930억원을 기록하며 불 꺼진 국제공항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개일수 연 16일에 불과하고 지방공항 유일하게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국제선은 일부 아시아 노선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선은 광주공항으로 이원화돼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도민들은 그동안 지적에 국제공항을

두고도 해외출장이나 여행을 위해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내해 왔다

이들은 시·도지사의 이번 합의가 무안국제공항에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으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연계한 안정적인 항공수요를 확보하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큰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환영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는 무안군과 서남권 발전의 발판은 물론 시·도민 편의를 증진하고 항공관련 산업 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민의 최대 현안이자 필수 과제다.

'2029년 부산 가덕도신공항,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2030년 대구경

북통합신공항이 개항할 예정인데, 지금 이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무안국제공항은 도태되고 말 것으로 우려했다.

시·도지사 합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안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귀남 전남도새마을회장은 "시·도지사 합의를 진일보한 실행단계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 지역민의 지혜와 합심이 시급하다"며 "이제는 무안군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발전을 불모로 막무가내식 반대에 골몰해서는 안된다. 무안군은 민주주의식 대화와 공론의 장으로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영원한 봄의도시,
베트남의 작은 프랑스마을 '달랏'

KAC 무안국제공항
PACIFIC AIRLINES
A Member of Vietnam Airlines Group

꽃길만차

무안 ↔ 달랏 직항

999,000원~

3박4일(월) 오전출발 무안-달랏 07:05~10:05 달랏-무안 11:45~18:40

3박5일(목) 오전출발 무안-달랏 20:10~23:10 달랏-무안 22:40~05:35

기간 : 2023년 9월 28일 ~ 2024년 3월 28일

달랏 [중계] ₩

999,000~

달랏 [고품질] ₩

1,099,000~

달랏 [나트랑/무이네]

1,049,000~

달랏골프 [54홀]

1,499,000~

월드투어센터 대표번호 070-3607-1134